

“북남관계, 신뢰와 화해로 돌려세워”

北 김정은 신년사… 개성·금강산 재개 용의 한미훈련·전략자산 중단 촉구·비핵화 의지 재확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지난해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적대관계의 근원적 청산과 한반도 평화변영 의지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로 방영된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70여 년의 민족 분열 사상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 조선반도의 비정상적 상황을 끝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 결심 밑에 정초부터 북남관계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협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군사적 적대관계의 근원적 청산과 한반도 평화지대 조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 상상하지 못한 경이적 성과를 짧은 기간에 이뤄진 데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2019년에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변영, 조국통일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과 남이 평화변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

상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북남이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제재와 압박도, 도전과 시련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계기로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도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협상 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기대 섞인 전망을 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파하지 않는다고 내외에 선포했다"며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신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간다면 두 나라 관계는 확실하고 획기적인 과정을 통해 훌륭하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 짓고 인민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에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하면 유익한 중차점에 닿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익하고 건설적인 의결'을 내렸다고 평가하며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민의 인내심을 오만하면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와 압박에로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자주권과 국가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경부터 노동당 집무실 소파에 앉아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다. 집무실 책상 양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담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또한 신년사 낭독에 앞서 영상으로 김 위원장이 김영정 노동당 제1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함께 집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뉴시스

日 전 총리비서관 “레이더 영상 보니, 日초계기 잘못”

일본 정부는 최근 우리 해군 함정이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증거자료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지만, 해당 영상은 증거자료로 불충분할 뿐 아니라 해상자위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시절인 2001년~2004년 총리 비서관을 지낸 오노 지로(小野次郎·65) 전 참의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보니 일본의 주장보다도 한국 측의 긴박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며 "북한 선박에 작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 군함에 이유도 없이 (일본 초계기가)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분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오노 전 의원은 또 "일본 해상보안청도 북한 선박에 접근할 경우, 상대방의 저항과 불의의 공격에 대비해 위협사격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한 경계도 강화한다"라며, 당시 북한 조난 선박에 대한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던 우리 측이 경계를 강화했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위대 호위함은 예측불허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보통 괴뢰선에 접근하지 않는다"며 "내외적인 배려로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상황을 스스로 공표하거나 선전하는 것을 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영상에 대해 "2001년 연말 아미미(奄美) 괴뢰선 사건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미미(奄美)섬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후 도주한 북한 괴뢰선박과 교전해 침몰시킨 사건이다. 당시 총격전으로 일본 측은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북한 괴뢰선박 측은 1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선원 전원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은 "한국군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있다"며 사건 발생일인 20일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13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자위대원이 초계기가 레이더가 조준됐다고 보고하는 음성 등이 녹음됐지만, 방위성 담당자조차도 "영상만으로 레이더 조준을 증명하기에는 한정적"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해당 영상은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방위성은 레이더 주파수는 "기밀사항"이라며 우리 측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뉴시스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액 3억 달러 고지 보여

지난해 11월말 기준 2억 8987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5% 증가

지난해 11월(누계) 전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1.5% 증가한 2억 8,987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북도 농수산물의 수출 목표(2.4억 달러)를 20.8%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수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농수산물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 증가율 41.5%는 전국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율(2.9% 증)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 9개 도부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부류별로는 축산물(164.1% 증), 가공농수산물(55.6% 증), 신선농수산물(11.7% 증)이 증가하고, 지난해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산물(1.9% 감)의 감소폭이 줄었으며 인산물(38.7% 감)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축산물은 닭고기(1,276만6,000 달러, 249.6% 증)가 축산물 수출 비중 1위 품목이었고, 가공농수산물도 라면 수출이 증가하면서 면류(4,363만1,000 달러, 337.9% 증)가 상승세를 주도하여 전년 동기대비 55.6% 증가했다.

수산물은 마른김(6,009만 달러, 2.9% 감)이 주 수출 시장인 태국(4,711만

8,000 달러, 14.0% 증)과 러시아(203만 달러, 25.0% 증) 수출이 늘었음에도 일본(817만2,000 달러, 42.2% 감)과 중국(27만 달러, 48.0% 감)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총 2.9%가 감소했다.

조미김(4,227만 달러, 1.7% 감)은 미국, 일본, 호주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2,481만2,000 달러, 9.9% 감)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면류의 수출증가도 지난해부터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 1위를 회복한 중국(6,304만9,000 달러, 58.9% 증)에 이어 마른김 수출이 꾸준한 태국(5,284만 4,000 달러, 22.1% 증)이 2위를 차지했으며, 감소세 문화가 지속된 일본(3,798만8,000 달러, 2.0% 감)은 일본은 여전히 수출액 기준 3위를 차지했다.

전라북도 농수산물산업과 조효일 과장은 "현 추세라면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 3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도내 농수산물 수출업체 및 관계자들이 그간 불철주야 노력해준 결과로 올해에도 수출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 발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6개 선정 쾌거

지난해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에 무주반딧불 축제가 2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북도 6개 축제가 선정됐다.

무주반딧불축제 외에 김제 지평선축제가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됐으며, 임실(치치축제가 우수축제로, 순창장류축제가 고창모양성제 그리고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라북도 축제는 임실(치치축제가 우수축제로 발돋움

함에 따라 글로벌, 대표, 우수, 유망 등 4개 분야에 골고루 포진하게 됐다.

또한,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는 전체 46개 축제로, 이중 전라북도는 강원(7개)에 이어 6개(점유율 13.0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국비 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 축제는 2억7천만원, 우수축제인 임실(치치축제는 9천2백만원, 3개의 유망축제는 각각 6천8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정경두 국방, 새해맞이 육·해·공 장병 전화격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장관은 오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대대장, 동해안동함 함장, 서해 대청도와 소청도를 지키는 해병대 대대장, 비상대기 중인 전투기 조종사와 통화를 갖고 휴일에 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라며 이같이

이 밝혔다. 정 장관은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힘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새해에도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부여된 사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새해 일출보러 온 사람 많더라… 간절함 때문 아니겠는가”

전국 의인 6명과 기해년 첫 날 해돋이 산행 뒤 조찬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기해년(己亥年) 첫 날 해돋이 산행 뒤 "오늘 남산 팔각정에 올라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일출을 보러 왔는데, 그만큼 새해에 바라는 마음이 다들 간절함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함께 해돋이 산행에 나섰던 전국 의인(義人) 6명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나눈 조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15분까지 75분 간 서울 중구 장충단 국립극장에서 시작해 서 울타워 인근의 팔각정까지 약 2.7km 구간의 남산을 올랐다.

이날 산행에는 박재홍(30)·유동운(35)·박종훈(54)·안상균(39)씨, 민세은(14·여)·황현희(18·여)양 등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산행 뒤 이들을 청와대 대로 초청해 떡국으로 아침을 함께 했다. 각자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과 동기, 이후 달라진 삶 등에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 새해 일출을 보는 것을 좋아해 우리나라에 좋다는 곳은 거의 다 본 것 같다"며 강원도 정동진, 제주도 성산 일출봉, 남해 보리암 등을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남해 보리암에 관해 "일출과 일몰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섬과 섬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게 장관"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 근교 해돋이 명소로 남양주 수중사(水鑿寺)로 꼽은 문 대통령은 "수중사에서는 한강 위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멋지다"며 "이곳은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가 차를 마시며 만난 의미있는 곳이기도 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해돋이를 본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향 부산의 일출 장소로 간절곶과 대운산을 거론하며 "두 곳을 놓고 어느 쪽이 우리나라

에서 일출을 가장 일찍 볼 수 있는 곳인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북도청 직원, 새해부터 로컬푸드 먹는다

로컬푸드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도가 2019년 새해부터 도청 구내식당에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해 앞으로 공공기관 확산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날부터 도청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신선농산물을 지역산 농산물로 공급하기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찰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동 김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 중 유일하게 로컬푸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는 구내식당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해 거점 직매장을 선정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직매장 간 부족한 품목을 상해하기 위해 제휴푸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구내식당은 다품목 소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100% 품목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점까지 고려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공기관, 군부대 등 공동급식소에 지역산 먹거리 제공을 표방하는 푸드플랜(푸드시스템) 완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번 도청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을 계기로 향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14시군 구내식당은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에 지역산 로컬푸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로컬푸드로 도내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공급한다면 소농·고령농의 수입이 많아져 농업농촌의 순순환 구조를 정착 시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보편 아동수당 신청 “작년 11월생 서둘러야”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급대상은 1월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2019년 이전 출생 아동은 1~3월 중 신청하면 4월25일 한개번에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

은 출생일로부터 두 달(60일) 안에 신청해야 올해 4월부터 소급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해 11월3일부터 중순 사이 출생한 아동은 이달 중순 전까지 종전 방식으로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법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일인 4월1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시행 전까지 주민센터, 복지포털(www.bokji.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뉴시스